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작년 보다 10% 더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서 최다 선발
진로선택과목 반영 대학 늘어
학종으로 11곳서 184명 모집

2022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선발인원은 정시 선발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617명으로 전년보다 61명 더 선발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시 지역인재 학생부교과전형으로 413명 선발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은 413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이어 전남대 38명, 부산대와 동아대 30명 순으로 모집 인원이 많다.

교과전형 지원 시 무엇보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과 성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

〈2022학년도 의예과 지역인재전형 지역별-전형별 수시모집인원〉

지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강원	가톨릭관동대(8)강원대(15)	연세대(미래)(14)한림대(15)	
경남·부산·울산	경상국립대(20)고신대(25) 동아대(30)부산대(30) 인제대(28)	경상국립대(3) 부산대(30)울산대(4)	부산대(20)
광주·전남·전북	전남대(38) 전북대(46(전북))	원광대(30(전북)) 원광대(10(광주/전남)) 조선대(27)	
대구/경북	경북대(10)계명대(19) 대구가톨릭대(15)영남대(25)	경북대(28)계명대(6) 동국대(경주)(10)	
대전·세종·충남·충북	건국대(글로벌)(12) 건양대(20)순천향대(21) 을지대(15)충남대(23) 충북대(7)	순천향대(7)	
제주	제주대(6)		

/2022학년도 각 대학 수시 모집요강 발췌

는 대학이 많아 과거 입시결과와 비교할 때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 교과전형이지만 면접을 치르는 대학이 있어 이를 지원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등 8개 대학이 면접을 치르며, 전년도 면접을 치르지 않았던 경북대가 면접을 도

입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건양대 지역인재(면접)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 적용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고 의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 전년보다 최저기준을 완화한 대학들이 있지만, 비교적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수능 준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1곳 학종으로 184명 모집...10개 대학 면접 시행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의대 선발은 11개 대학에서 184명을 모집한다. 원광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부산대 30명, 경북대 28명, 조선대 27명 순으로 모집인원이 많다.

단, 충청권역의 경우 지역인재 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은 98명인데 비해 종합전형으로는 순천향대만 7명을 선발해서 모집인원 차이가 크다. 우연철 소장은 "따라서 해당 지역 학생들은 교과전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은 면접을 치른다. 울산대의 경우 면접 반영 비율이 50%로 매우 높지만 다른 대학은 20~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반영한다. 하지만 의대 지원자들이 대부분 높은 서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면접이 제시문 기반으로 치러지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면접 영향력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순천향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최저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해야 한다.

부산대는 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과 더불어 논술전형으로도 20명을 선발한다.

우 소장은 "이들 사이의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의 전형 간 중복지원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예과 논술전형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임을 고려하면 부산대 지역인재전형의 논술전형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등 학생부 경쟁력과 상관없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유·초등 저학년 교사 38만명 백신접종 시작

이스라엘 스와프 백신 사용
서울·경기 지자체 자율 접종

13일부터 영유아 돌봄인력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38만명이 백신을 접종한다.

당초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접종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로 도입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면서다.

돌봄 교사·인력 약 11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13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다. 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들은 19일부터 30일까지 접종하게 된다. 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일반 병원에서도 시작된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나사렛종합병원에서 돌봄교사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은 14일부터 17일까지 예약한 뒤, 28일부터 8월7일 사이에 접종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협

의해 2분기 우선접종 대상이었지만 누락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파악해 28일부터 8월7일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 모빌리티 MOU

UAM산업 핵심기술 개발 시너지 기대

건국대학교는 한국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국대와 KIAST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UAM을 비롯한 항공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가 정책·연구·개발 사업 발굴,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UAM(어반 에어 모빌리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분야 중 하나로 eVTOL(전기 수직이착륙)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의 도심 교통에 관

련한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포르쉐, 보잉, 우버 등 해외기업은 물론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관 부서인 건국대 항공우주 설계·인증연구소(KADA)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무인비행체 및 UAM을 위한 비행체 및 운항,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기술, 디지털 가상세계에 현실 속 기계, 장비, 사물 등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학기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 학부·학과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편입학은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주)약손명가와 협약

문화예술 인재 양성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주)약손명가와 (주)약손명가 본사에서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기관은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해 ▲주요 시책 홍보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정보자료 교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 공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약손명가에 소속된 자가 서울문화예술대에 일반전형으로 신·편입학 지원을 하면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서울문화예술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남연 학과장은 "약손명가와 MOU 체결로 하계방학기간 현장실습자로 지점을 배정받은 토탈미용예술학과 학생들은 8주간의 현장 실습 및 교육을 받고 우수학생은 조기 취업을 할 수 있어 좋



김남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토탈미용예술학과 학과장(오른쪽)과 김현숙 (주)약손명가 대표가 MOU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문화예술대 토탈미용예술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창의적 전문 인재 육성 및 뷰티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종합미용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헤어, 피부, 네일아트 등 다양한 뷰티 분야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상명대박물관, '일상을 함_담다' 개최

VR 전시로 마련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12일부터 온택트(On-tact) 전시 프로그램인 '일상을 함_담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예품과 지역 사회의 역사와 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획했다.

전시는 ▲일상을 보다 ▲일상을 이해하다 ▲일상을 만들다라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일상을 보다'는 금속·도자·가·목공예 등을 상시 볼 수 있도록 VR(가상현실) 전시로 마련됐다.

'일상을 이해하다'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미나형 영상프로그램으로 정춘모(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알장의 갓 제작과정과 김창식(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의 이종장 제작과정을 통해 공예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을 만들다'는 VR 전시와 세미나형 영상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이현진 기자